

해외로 눈돌리는 공제회... '교직원' 등 운용사 선정돌입

한국교직원·과학기술인 공제회 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총 4000억원 운용 최대 6개기관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도 해외로 향하고 있다. 국내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기관투자자의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해외 주식 및 채권 재간접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고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해외 재간접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3일 공문을 내고,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이후 총 2단계(정량, 정성평가) 절차를 거쳐 내달 6일 2000억원을 운용할 2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해외주식 재간접 위탁운용사 선정개요〉

구분	주요내용
투자금액	· 2,000억원
선정기관 수	· 위탁운용사 2개사, 예비 위탁운용사 1개사 ※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각각 1,000억원씩 투자할 예정이며 예비 위탁운용사는 본회의 신규투자 계획에 따라 향후 투자 예정
선정 방식	· 정량(1차), 정성(2차)평가를 기초로 한 일괄방식 선정
지원 자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자격을 갖춘 운용사
주요 역할	· 집합투자기구 설정(또는 일임계약)을 통한 투자기구(Vehicle)마련 및 해외주식 운용사(또는 공모펀드)선정관리 업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역시 지난 16일 공문을 내고,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을 거쳐 역시 총 2000억원을 운용할 최대 4개 기관을 뽑는다.

운용방식은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국내 자산운용사가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해외 주식 또는 공모펀드,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제회가 직접 운용하기에는 해외 주식세와 개설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더 유연

하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내 자산운용사를 뽑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도 교직원공제회는 해외 투자의 경우 100% 위탁 운용해 왔다. 다만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과 차이점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아닌 해외 자산운용사가 현지에서 운용하는 투자 프로세스를 가져오겠다는 의미다. 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총 운용규모가 36조원인데 이 중 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긴 힘들다"면서도 "재간접 위탁운용사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해외투자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회의 해외투자 비중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해외주식에 9260억원을 투자하고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금은 1조 2723억원으로 37.4% 늘었다.

전체 운용 자금의 56.6%를 투자하고 있는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9조4026억원의 자금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대체투자 규모는 7조5037억원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역시 해외투자 비중을 매년 늘려오고 있다. 이미 5조원이 넘는 운용자금 중 61%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새로 유입되는 자금을 투입해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관계자는 "국내 투자비중을 특별히 줄이는 건 아니고,

새로 유입되는 자금은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위탁운용을 통해 해외 투자 정보도 빠르고, 조직도 더 큰 해외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잘 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자금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익률도 훨씬 좋고, 오히려 더 안정적 이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지난 16일까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및 채권을 매수한 규모는 603억달러(약 73조 293억원)로 작년 한 해 수준(600억달러)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은 고객의 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 추구가 중요하다"면서 "국내에만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없는 환경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 증시 급락에 2분기 실적부진

2분기 연결순이익 555억, 65% ↓ "증시 하락세... 3분기 부진 예상"

증시 하락 여파로 브로커리지(주식중개) 의존도가 큰 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IB(투자은행)부문 등에서 호실적을 내놓은 타 증권사들과 대조된다.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 리테일(소매) 의존도가 높은 만큼 증시 급락 여파가 3분기에도 이어지면 또 한 번의 부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2분기 연결순이익은 55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4.8%

감소했다. 주식운영본부 수익이 적자로 돌아선 동시에 PI(자기자본투자)부문과 자회사(키움인베스트먼트·키움PE·투자조합 및 펀드)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수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식운용본부의 수익이 적자 전환했다"며 "연결로 반영되는 투자조합 및 펀드의 수익 역시 감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리지, 리테일 의존도가 높은 키움증권은 타 경쟁사보다 주식시장의 등락과 연동관계가 크다. 실제 주식시장이 부진했던 지난해 4분기에는 적자를 시현했고 주식시장이 회복된 올해 1분기에는 어닝스프라이즈를 기록, 다

시 증시 하락이 이어진 이번 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내었다. 7월 이후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또 한 번의 실적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주식시장이 코스닥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고 키움증권의 높은 이익 변동성을 감안할 때 3분기 실적 또한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I 부문에서는 29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PI 부문은 지난해 4분기 547억원 적자, 올해 1분기 763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분야다.

최근 증권사의 실적은 PI 투자 성과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PI 투자 전략이 시장 변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이익(수수료+이자)은 아직 견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지난 2분기 주식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9.0% 증가한 1819억원의 수수료와 이자를 벌어들였다. 개인 시장점유율은 29.1%로 상승했고 IB 수수료는 72.1% 증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증시 변동성 확대시 PI 수익성 약화가 예상되나 주식 및 메타진 외 투자 확대로 변동성은 감소하고 있다"며 "리테일 브로커리지 중심 영업에서 종합증권사로 탈피하기 위한 체질 개선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내일 '100세시대 아카데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8월 강좌를 오는 21일 NH투자증권 본사 아트홀에서 진행한다. 100세시대연구소는 올해부터 '명사 특강' 코너를 신설해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8월에는 두 번째 명사 특강으로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백년을 살아보니' 강좌를 실시한다. 매월 개최하는 '100세시대 아카데미'는 강의 일자별 사전 참가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NH투자증권 영업점 담당 서비스직원 또는 모바일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손엄지 기자

미세먼지 걱정 없앤 공기청정 아파트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광주 오폐 고산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C1블록에서 아파트 59~84㎡ 1396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59㎡ 48가구 ▲76㎡ 479가구 ▲84㎡ 869가구 등이다. '오폐 더샵 센트럴포레'는 미세먼지 청정아파트로 세대 내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며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조성한다.

포스코건설은 각 동 출입구에 에어 샤워 부스가 설치돼 미세먼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에어샤워 노즐을 통해 바람과 집진으로 이물질 제거해주는 시스템으로 귀가시 옷이나 몸에 달라붙은 이물질과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대 내에는 청정환기 시스템이 무상 설계된다.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4중 필터 장치로 99.9%까지 차단

'오폐 더샵 센트럴포레' 이달중 분양 포스코건설, 경기 광주에 1396가구



오폐 더샵 센트럴포레.

하고, 초미세먼지의 10분의 1 크기인 0.3㎛ 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도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입주민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마련된다.

사업지에서 약 1.5km 거리에 오는

2022년 일부(서울~안성 구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오폐IC를 통할 수 있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번국도, 제2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수월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삼평동) 삼한하이팩스 A동 109호에 사전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1577-0065) /이규성 기자 peace@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가치투자분석'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가치투자분석' 집합교육과정을 10월 7일부터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식 운용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가치투자분석' 과정은 거시경제 및 업종별 기업분석 방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조사·분석의 기초 이론을 익히고 기업재무 및 기업가치평가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업종별 최근 특징 및 투자전략, 주식시장의 트렌드 분석과 기업평가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개별 기업에 대한 비교분석능력 등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다. 교육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9일간 3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부동산펀드 가입 이벤트

키움증권은 홈플러스 3개 점포(인천 인하점·대전 문화점·전주 완산점)에 투자하는 '이시스 코어 리테일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시스 코어 리테일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펀드 국내1위(부동산 펀드 설정액 기준) 이시스 자산에서 운용하며 홈플러스 3개 점포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추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구조이다. 공모 예정금액은 약 1180억원이며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다. /김유진 기자